

경마·골프

10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스포츠동아

'1879 챔피언스배 골프' 1차 대회 힘찬 첫 발



1879 CHAMPIONS CUP
연간일정
"1879골프와 스포츠동아가 공동주최하는 골프축제"
스폰서: CENTURY21CC, ARAMIR, KRA, 포도CC, 뉴서울, 포도CC, 센추리21CC, 군산CC, 아라미르CC, 골프클럽Q, 뉴서울CC, 포도CC

2월	25일	18일	22일		
3월	23일	16일	30일	29일	31일
4월	5일	1-7일(마중)	20일	29일	30일
5월	3일	3-7일(마중)	18일	31일	24일
6월	7일	1-4일(마중)	15일	29일	30일
7월	5일	1-7일(마중)	20일	29일	26일
8월	2일	2-6일(마중)	17일	31일	23일
9월	6일	1-7일(마중)	29일	29일	30일
10월	4일	1-7일(마중)	19일		
11월	1일	1-5일(마중)	16일	30일	29일

상기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페리오 남자부 김형만씨 우승

71.6타...신페리오 여자부 신정은씨 70타 정상 메달리스트 부문 신 김대성·임미정씨 남녀 1위

프리미엄 국산골프클럽 브랜드 1879골프(회장 이동현)와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는 '1879 챔피언스배 골프대회'가 힘차게 첫 걸음을 뒀다.

170여 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경남 창원 아라미르CC에서 1879 챔피언스배 골프대회 1차 대회가 열렸다. 순차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신페리오 남자부에서는 김형만씨가 71.6타를 기록한 김형만씨가, 여자부에서는 신정은씨가 70타로 정상 메달리스트 남자부에서는 김대성씨가 72타로 우승, 홍상표씨가 74타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임미정(66타)씨와 최미경(67타)씨가 각각 우승, 준우승 영광을 안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대회는 첫 일정인만큼 뜨거운 열기를 뽐냈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실력을 겨루는 1879 챔피언스배 골프대회는 올해 12월까지 아라미르CC를 포함해 뉴서울CC, 골프클럽Q(안성), 센추리21CC(원주), 군산CC, 포도CC(김천) 등 전국 6개 골프장에서 총 50회 펼쳐진다. 18일 아라미르CC 1차 대회를 시작으로 22일 골프클럽Q, 25일 군산CC 대회 등 2월에는 3개 대회가 열리며 3월 이후 매월 대회가 마련된다. 12월에는 50개 대회의 우승자들이 참가하는 왕중왕전을 통해 2021 시즌 챔피언을 가릴 예정이다.

1879골프와 스포츠동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골프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마추어 참가자들에게 전국 6개 골프장에서 다양한 라운딩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대회 참가는 공식홈페이지 1879골프 공식몰(www.1879golfgame.co.kr)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8만7900원(카트비, 캐디피, 식대 별도). 1879골프는 매년 1879만 원을 다양한 곳에 후원해 왔으며 올해 후원금은 불우 골퍼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왕년에 잘 나가던 스타 경주마들, 씨수말로 교배 준비 끝

'씨수말 데뷔' 트리플나인, 교배 문의 폭주

최대 수득상금의 '명품 DNA' 기대감 파워블레이드, 교배 70회 이상 목표 경부대로, 자마 103두 총 8억원 수득

올해 경주마 교배활동은 20일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서 열리는 '무사고 기원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약 80두의 씨수말들이 약 2000두의 씨암말들과 교배활동에 접어들 예정이다. 외산마에 비해 혈통적으로 열세에 있던 국산 경주마는 꾸준한 혈통개량을 통해 현재는 외산마 못지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18년 전체 중 5%에 그쳤던 국산 씨수말 교배는 2년 만에 11%를 넘어섰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산 씨수말로써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설적인 명마 '파워블레이드', '트리플나인', '경부대로'의 교배 준비와 근황을 살펴본다.

● 한국 최초 통합 삼관마 '파워블레이드'

데뷔 직후 2세 때 브리더스컵 우승을 시작으로 3세 때 삼관 시리즈인 KRA컵 마일(GⅡ, 1600m), 코리아던비(GⅠ, 1800m),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Ⅱ, 2000m) 석권으로 한국 최초의 통합 삼관마를 이뤄내며 현재까지도 유일무이한 존재로 남아있다. 4세 때는 한국경마 최고의 경주 그랑프리(GⅠ, 2300m)에서 우승했다. 두바이월드컵 그레이드 대회에 출전해 국산마 최초로 입상하며 국산경주마의 저력을 해외에 알리기도 했다.

2019년 6월 은퇴한 파워블레이드는 서귀포 정성목장으로 자리를 옮겨 첫째 세마리의 자마를 배출했다. 본격적인 교배 활동에 접어든 2020년에는 71회의 교배를 진행하며 교배두수 공동10위를 기록했다. 김은범 정성목장 대표는 "현역이



한국 최초 통합 삼관마 '파워블레이드', 사상 역대 최대 수득상금 42억 원의 경주마 '트리플나인', 2014년 연도대표마 '경부대로'는 외산마 못지않은 국산 씨수말로써의 능력을 올해에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해도 믿을 만큼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인 '파워블레이드'는 다행히 교배에 적극적으로 임신율도 높아 올해도 작년 수준의 교배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자마 모두 성장속도나 성품이 뛰어나 빠르면 올해 하반기 경매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최고 수득상금의 주인공 '트리플나인'

한국경마 사상 역대 최대 수득상금 42억 원의 주인공이다. 국산 최강마를 뽑는 대통령배(GⅠ, 2000m)를 4년 연속 우승했고, 2018년도 그랑프리(GⅠ, 2300m) 등 중 일곱 번의 대상경주 우승에 빛나는 활동에 접어든 2020년에는 71회의 교배를 진행하며 교배두수 공동10위를 기록했다. 김은범 정성목장 대표는 "현역이

높았다.

첼리저퍼에서 씨수말로 데뷔하는 '트리플나인'에 대해 이광림 대표는 "데뷔 첫해이지만 교배문의가 상당히 많아 70두 정도 교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하지만 말산업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첫째 교배료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 시대의 명마서 씨수말 명마로 '경부대로'

최시대 기수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경부대로'는 메디피의 자마로 2011년 데뷔 직후 경남신문배(1200m, 2세 한정) 우승하며 대표 2세마로 발돋움했다. 3세 때 KRA컵마일(GⅡ, 1600m)에서 우승했고 코리아던비(GⅠ, 1800m)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GⅡ, 2000m) 입상 등 꾸

준한 우등생의 행보를 보여왔다. 5세인 2014년 2월 부산일보배(1600m)를 시작으로 대통령배(GⅠ, 2000m)와 그랑프리(GⅠ, 2300m)를 연거푸 우승하며 같은 해 연도대표마와 최우수국산마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2016년 씨수말로 전향한 첫해에만 52두를 생산하며 기대한 만큼 받았다. 2017년 탄생한 첫 자마 '라운여걸'이 2019년 데뷔와 함께 좋은 활약을 보이며 씨수말로써의 능력도 입증했다. 2018~19년에도 각 42두씩 교배하며 국산 씨수말 중 가장 많은 교배 성적을 거뒀다. 경부대로의 자마들은 지난해까지 총 103두가 경주마로 데뷔해 총 8억 원의 상금을 수득해오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닉스고, 사우디컵 '110억원 돈잔치' 주인공 될까

(우승상금)

상금 규모 세계 최고...21일 경주 마사회 SNS 닉스고 응원 이벤트

한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세계 최고 상금이 걸린 경주인 사우디컵에 출전한다. 2월 20일 현지 시각 20시 40분(한국 시각 21일 새벽 2시 40분) 압둘라지드 경마장에서 열리며, 우승상금 1000만 달러(약 110억 원), 경주 총 상금은 2000만 달러(약 220억 원)다.

사우디컵은 기존 1200만 달러 규모의 최고 상금을 자랑하던 '두바이 월드컵'을 웃도는 2000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론칭됐다. 올해 사우디컵에는 중동을 비롯해 일본,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14두가 출전한다. '닉스고'와 미국 경주마 '샤틀라탄'이 미국 최대 배팅사이트 'US racing'에



닉스고

서 17일 오전 기준 가장 낮은 2.25와 1.75의 배당률을 받아 우승 확률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사우디컵은 코로나19로 인해 말과 경주마 관계자 등 제한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한 '무관중 경마'로 실시된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유럽, 아프리카 등 총 31개 대륙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공식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닉스고 응원 댓글 이벤트'와 '우승마 예상 이벤트'를 20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주유권, 치킨, 커피 상품권 등의 상품이 주어진다. 정용운 기자

마사회TV 퀴즈 맞히면 '파바 상품권' 쏜다

유튜브 채널 개설 1주년 이벤트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대표 유튜브 채널인 '마사회TV'가 개설 1주년을 맞이해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참여 방법은 오는 22일까지 마사회TV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퀴즈에 응모하고 마사회TV 채널 구독 인증을 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제품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유튜브 마사회TV 채널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사회TV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연택트 트렌드에 맞춘 아이템들로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온라인 빗꽃 버스킹 영상 기획, 인기 스타 기수 피규어 공개 등의 콘텐츠를 비롯해 사회공헌·힐링스마 등 한국마사회의 주요 사업들을 흥미롭게 알



려왔다. 또한 선수단 재능기부 강습, 재활 힐링스마 브이로그, 유튜브 라이브 퀴즈쇼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공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KHSA와 함께하는 홀덤이야기

'검은 유혹' 받는 딜러들, 합법적인 홀덤법에서 재능 펼치길



홀덤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달리교육센터(KDEC)의 제1호 강사 자격을 획득한 김민서입니다. 카지노학과를 졸업하고 우연한 기회에 홀덤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돼 홀덤에 빠져지게 되었고, 지금은 제 평생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지노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바다 위를 다니며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크루즈에 취직했습니다. 크루즈에서 낮에는 여러 나라에 정박해 여행을 다니고 밤에는 항해하는 크루

즈 안에서 카지노딜러로 일했습니다.

크루즈에 근무하던 6개월 동안 세계 각지를 다니며 일을 하고 한국에서 6주간의 휴가를 갖습니다. 휴가 때 잠시 일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우연히 동네에 KMGMI라는 홀덤방이 오픈해 직원을 구하고 있었고, 바로 그날 저녁에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홀덤에 대해 무지하고 블랙잭 바카라 룰렛이 아는 것의 전부였던 저는 홀덤방이라는 곳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칩과 카드를 다루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잘할 수 있는 일

이라 생각했고, 몇 주 뒤 홀덤에 대해 배우고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홀덤법은 직원들과 손님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한 가지 게임을 공유하고 즐기는 모습이 매우 자유로웠고, 불법적으로 하는 도박장의 이미지가 아닌 정말 사람들이 즐기면서 취미 생활로 할 수 있는 홀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크루즈로 돌아가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KMGMI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후 수많은 대회들을 진행하고 TV프로그램에 예능으로 나오기도 하면서 홀덤법이라는 곳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

이 홀덤을 알게 되었을 때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홀덤방들이 집합제한을 받게 되고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설날이 지나고 나서야 2개월이 넘는 오랜 휴식을 깨고 홀덤방이 다시 문을 열고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홀덤법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도박장이나 몰래 문을 여는 곳들로 가서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단속에 걸려 벌금도 내고 조사를 받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피해보지 않고 예전처럼 밝고 합법적인 곳에서 재능을 펼치

며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게는 아직까지도 많은 돈을 주겠다고 불법도박업체로 일하러 오라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홀덤산업이 많이 발전했고, 세계 시장까지 뻗어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처럼 홀덤을 사랑하고 홀덤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려는 친구들이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홀덤에 대한 전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홀덤에 종사하는 모두가 자신의 일터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달리교육센터(KDEC) 김민서 기획운영팀장